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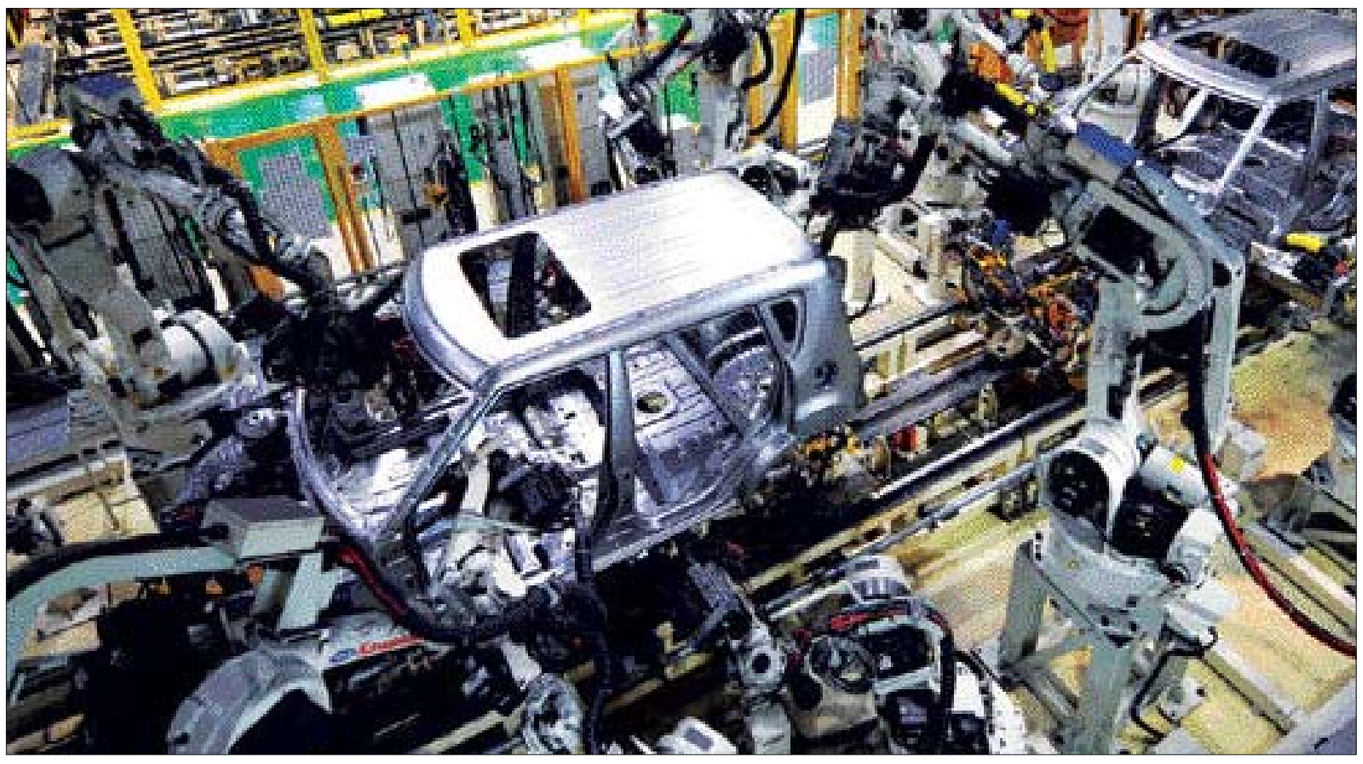
光州日報

광주 14/25℃ 목포 15/24℃ 여수 18/24℃

단기 4342년 (음력 8월 1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88호 1판 2009년 10월 5일 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기아차 광주 1공장의 쏘울(SOUL) 생산 라인에서 5개의 로봇 팔이 차체를 조립하고 있다. 쏘울 생산라인은 용접 등 100% 자동화 된 차체 라인을 비롯 ▲프레스 ▲도장 ▲의장 라인으로 구성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쏘울' 세계명품 됐다

월 수출 1만대 돌파·세계 디자인상 휩쓸어…기아차 생산 확대 검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신개념 CUV인 쏘울의 인기에 힘입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극심한 자동차 경기 침체에도 출시 1년 만에 월간 수출량 1만대를 돌파하는가 하면, 지난 1년간 내수·수출 모두 합해 10만 6천 187대를 기록, 광주를 대표하는 글로벌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기아차는 최근 광주공장에서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쏘울 증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노조측에 내놓았다.

현재 쏘울을 생산하는 1공장 뿐만 아니라 2공장에서도 쏘울을 생산하는 한편, 현재 시간당 37대를 생산하던 방식에서 시간당 42대까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회사측 구상이다. 이렇게되면 1공장의 경우 오는 2010년부터 올해보다 13%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기아차는 출시 당시 수출 10만대·내수 3만6천대의 생산 목표를 세웠었다.

회사 측은 노조가 동의하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쏘울의 판매 신장이 한몫했다.

기아차 쏘울의 경우 지난 9월 한 달 동안 해외에서 모두 1만623대가 팔리는 등 처음으로 한 달 생산·수출대수가 1만대를 돌파했다. 지난달 월별 해외 판매 대수가 1만대를 넘어선 것은 쏘울 출시(2008년 9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달 광주공장 생산 차종 가운데에서도 유일하다. 특히 쏘울의 경우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해외 수출을 위한 선적에 나섰지만 유럽시장의 경우 지난 2월, 북미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6~7개월만에 월간 해외 판매대수가 1만대를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쏘울은 출시 이후부터 품질과 디자인면에서 해외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면서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첫 선적에 들어가면서 3천742대가 판매된데 이어 12월 6천721대로 가파르게 뛰었고 올 2월 8천849대로 증가했고 지난 9월 마침내 한 달 판매량이 1만대를 돌파했다.

올 한해 해외에서 판매된 전체 쏘울 물량은 6만9천145대. 지난해 수출 개시 이후 지금껏 모두 7만9천757대가 판매됐다.

기아차가 지금껏 국내에서 판매한 쏘울이 2만6천435대라는 것과 비교하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배가 넘는 셈이다.

성공 비결은 직선형의 독특한 외형을 비롯 '예쁘지 않으면 눈길도 주지 않는다'는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디자인에 공을 들인 것이다.

북미카앤트럭오브더이어(North American Car and Truck of the Year)의 '2010년 올해의 차'후보로 선정되는가 하면, 유력 자동차 평가기관인 켈리블루북(Kelly Blue Book)사(社)가 선정한 '5개 최상의 선택 차종',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상 등으로 전문기관의 인정도 받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변호사 박 환 용 올림

개업일시 : 2009. 9. 18.

"일단은 통합 찬성이 대세"

무안반도·광양만권 국회의원이 전하는 시·군통합 민심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통합 논의지역인 광양만권과 무안반도 주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명확히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추석 귀향활동을 하고 귀경한 국회의원들이 전했다.

4일 여수·순천·광양지역, 목포·무안·신안지역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지역 통합에 대해 지역별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이날 "주민들이 광양을 포함한 광양만권 전체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광양을 제외한 여수와 순천 등의 통합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광양을 제외한 통합은 '기형적 통합'이라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곤 의원(여수갑)도 "여수에서는 현재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통합이 제일 큰 화두였다"며 "동부의 경우 광양이 빠진 여수시와 순천시 간의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서갑원 의원(순천)도 "광양만권에서 광양이 빠진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였다"며 "순천·여수·광양이 함께 하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광양·구례)은 "정부의 시도가 너무나 성급하다고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큰 틀에서 원칙 정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무안반도=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지원 의원(목포)은 "목포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시민단체나 종교·문화·예술계까지 서남권 광역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무안반도 통합이 필요하며 이것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은 "무안의 경우 찬성과 반대 세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반대세력의 분위기가 극렬해졌다"며 "전남도청 소재지 부근에서는 찬성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더욱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론조사 60% 찬성 땐 투표없이 통합"

이달곤 행안부 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시군통합과 관련, "통합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로 인해 주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시군 통합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여론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60%를 넘으면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여론조사는 이달 중순 통합 대상인 46개 시·군별로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지자체별로 찬성률이 50%를 넘으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11월 말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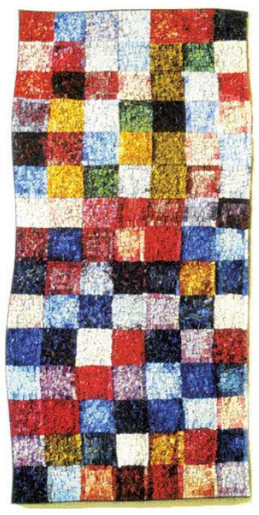
행안부는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에서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이달 중순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이탈리아 프리울리 학교 作 '모자이크'

伊 전통과 만난 '한국의 미'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Gwangju Design Biennale THE CLUE 한국의 미

세계 최고 모자이크 교육기관인 이탈리아 프리울리 학교 학생들이 한국 전통문양이 새겨진 조각보·창살문양·경첩 등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 다양한 색깔의 돌을 망치로 부순 뒤 하나하나 붙여 화려한 색감과 거친 질감을 살렸다.

이탈리아 전통 문양과 한국 전통 소재를 결합시켜 '한국의 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한복 저고리를 물들인 다양한 색깔이 표현됐고, 격자무늬가 주는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

집에 담긴 디자인의 가치를 찾아보는 전시인 '집' 섹션(비엔날레 전시관 2전시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